

Morris Rossabi ed., *China among Equals*

Michael C. Rogers, "National Consciousness in Medieval Korea: The Impact of Liao and Chin on Koryo"

고려의 dual heritage

- 고구려 전통: 강력한 만주 왕국, 고려는 고구려의 계승자임을 자처
- 신라적 전통: 압록강을 넘으려는 어떤 동기도 부재 오히려 통일신라 지배층에 위협한 것으로 인식, 행정적 필요로 후삼국 통일 이후에도 개성 지배층에 정착

신라 계승주의 vs 고려 계승주의

- 국가위기시 고려의 진정한 정체성을 둘러싼 양극화 발생
- 역사편찬 작업에 반영 ← 중국의 왕조 정당화 과학의 영향

Silla-Confucianist vs Koguryo nativist = 중화보편주의 vs particularistic

993 고려의 대거란 조공 결정과 서희의 성공 스토리

- 요사는 이를 증명하지만 신뢰할 수 없다?
- 유일하게 현존하는 요사의 원천사료인 계단국지에는 고려가 신라라는 제목으로 되어 있으며 993년 사건에 대해서는 기록 부재
- 서희의 전설은 1005 전연의 맹약 이후 1020년대 거란의 실제 침입 이후 과정에서 정당화되었을 것임

요시대까지만해도 중화보편주의는 살아 있었을 것임

1129년 고려에 대한 금의 조공 사절 요구

- 盟(meng, Covenant)과 命(ming, Mandate), 송-서하, 송-요, 송-고려 관계 상이
- 고려에 자주적 국가 정당화 요구를 자극 → 1135년 묘청의 난, 김부식의 진압

김부식의 역사 서술

- 사대의 대상이 누구이든 상관없이 사대 자체를 지지하는 입장
- 신라-고려의 왕조 교체를 문화에 의한 정복 패턴으로 설명, 고려의 반도 세팅에 완전히 만족
- 고려의 엘리트들은 송, 요, 금 등 대륙과 협상할 때 신라적 전통을 강조
- 당은 송, 금의 롤모델로 기능

1058년 Chueh-ssu-lo 탕구트와 대결, 1065년 사망

- 유일하게 송, 탕구트, 위그르 간의 긴 투쟁에서 중요한 역할을 한 인물
- 이후 내분, 송이 진압하고 제국에 편입

1115년 송이 서하와의 전쟁에서 패배, 여진의 개봉 정복으로 압도에서 송의 영향력이 소멸

- 토번의 마지막 조공은 1136년
- 압도는 서하와 금 사이에서 주인없는 땅이 되었으며 1182년 금은 총카를 제국에 통합

티벳은 요와 국경을 접하지 않았으나 처음에는 량주, 나중에는 총카가 교류를 시도한 기록

<사카파와 몽골>

1240년 이전에는 티벳과 몽골의 접촉이 부재

몽골은 라마들을 통해 티벳에 대한 영향력을 획득하려는 시도를 지속하였으며 1260년 사카파를 선택

티벳은 중국 황제와 사카파 리더에 의해 공동으로 통치되는 원제국의 특별한 지역으로 변모(\* 최원 제도)

- 사카파 장로의 역할은 정신적인 것에 한정
- 그 나라 자체에 지역 통치자가 없다는 점에서 한국이나 위그르 등과 차이
- 14세기 중반까지 원제국에 통합

\* 쿠빌라이시 사카파 고승 팍빠가 국사가 되어 라마교는 국교화. 원궁정은 사카파 승려들이 설법하는 탄트라 불교에 깊이 빠져 정복자에서 시주로 입장이 돌변

파그모그루파의 반란으로 티벳과 중국의 연결이 사실상 단절되고 거의 4세기간 독립국으로 복원

1126년 낡은 질서의 붕괴에 따라 die-hard 신라주의자들에게 당-신라 계승탈트는 아무리 개념적으로 이상화하더라도 12세기에 맞지 않는다는 것이 명백해짐

1170년 정중부의 쿠데타

- 오직 고구려 계승주의만 인정한 독재시대의 새로운 자의식은 한국사에 대한 중국적 규범을 거부
- 한국의 국가적 자의식이 국가적 통일의 신화까지 제고되기 위해서는 몽골의 침입이 필요

Luciano Petech, "Tibetan Relations with Sung China and with the Mongols"

당대 토번이 최초의 티벳 왕국, 842년 붕괴

- 송첸캄포, 문성공주 스토리

9세기부터 13세기까지 티벳 국가는 부재: 하나의 정부가 모든 티벳을 통치하지 못했으며 몽골 지배 이후에 하나의 국가가 등장

- 사료의 휘귀성, 종교적 색채도 동시기 티벳 대외관계 연구에 장애, 오대와 송도 대체로 티벳을 무시

<총카 왕국과 송>

10세기에는 西涼府(涼州)를 중심으로 티벳 정치세력이 성장

- 송이 중국을 지배하면서 말교역으로 압도, 량주를 중시

11세기 들어 P'an-lo-chih라는 지도자가 량주에 등장, 개봉 정부와 우호적 조공관계를 맺음

- 송은 탕구트 국가의 위협에 대응하기 위해 그의 지원을 희구

1014년 순수 티벳 지역인 총카(青海星 성도인 西寧 부근)에서 Chueh-ssu-lo라는 지도자가 등장

- 탕구트에 대결하기 위해 6만에서 7만의 군대를 모을 능력, 이듬해 송에 조공

1028년 탕구트 지도자 Li Yuan-hao가 위구르와 량주를 함락

- 총카와 중국의 직접적 교통을 차단 → Chueh-ssu-lo는 본거지를 오늘날 시닝인 Ch'ing-t'ang으로 이전

- 1032년 탕구트는 Chueh-ssu-lo를 공격, 1038년 서하제국 건설